양주 청련사 자비행…“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저소득층 100가구에 김치 등 전달
25가구에는 연탄 400장씩, 1만 장
상진 스님 “늘 이웃들과 함께할 것”

양주=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양주 청련사가 11월 21일 저소득층에 김치와 연탄을 전달했다.

연탄을 가득 실은 트럭이 좁은 골목길을 올라 언덕 집에 다다랐다. 시끌벅적한 소리에 집 앞마당으로 나온 이숙자(78) 할머니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들이 반가운지 함박웃음을 지어보였다.

“어르신, 주변에는 언제나 어르신과 함께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할머니는 스님들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연탄을 바라보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스님,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습니다. 요즘엔 연탄을 1000장씩 팔고 가격도 비싸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청련사에서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태고종 천년고찰 양주 청련사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청련사는 11월 21일 장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겨울나기 자비의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청련사 회주)을 비롯해 청련사 주지 직무대행 심곡 스님, 총무 벽산 스님 등 청련사 대중스님들과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이정수 장흥면장 등이 동참했다.

이날 청련사가 장흥면에 전달한 물품은 김치 1200kg(12kg, 100박스), 라면 100박스, 화장지 240롤, 고무장갑 500켤레, 연탄 1만 장 등이다. 김치와 라면, 화장지, 고무장갑은 장흥면사무소가 선정한 지역 내 저소득층 100가구에, 연탄은 꼭 필요한 25가구에 400장씩 전달됐다.

물품은 청련사 대중스님들의 모임인 참나나눔회, 청련사 포교원, 청련사 신도회인 관음회 및 심향합창단, 청련사 매점, 장흥면사무소, 장흥면 새마을부녀회가 십시일반 마련했다. 특히 이들은 전날 청련사에 모여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고 포장하며 자비행의 의미를 더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청련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치, 라면, 연탄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상진 스님이 태고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하고 첫 겨울 자비나눔 행사라 더욱 뜻깊다. 청련사의 이 같은 활동 덕분에 장흥면이 더욱 따뜻하고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도 “상진 스님과 청련사 대중스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돼 장흥 지역주민들이 올겨울을 잘 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식 이후 상진 스님과 30여 명의 대중은 장흥면 부곡리에 위치한 이숙자 할머니의 집을 찾아 연탄을 손수 날랐다. 400장의 연탄은 스님들과 불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졌고, 금세 마당 한켠을 가득 채웠다. 쌓여가는 연탄에 참석대중의 얼굴에는 고단함보다 행복함과 미소가 담겨 있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이웃이 많다. 청련사가 조금이나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할 뿐”이라며 “항상 용기 잃지 말고 행복한 마음으로 겨울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태고종도 각 지역 종무원에서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늘 함께하는 태고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련사는 매년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노인잔치, 무료급식, 장학사업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동국대 WISE캠 차기 총장에 류완하 교수

동대 이사회, 11월 21일 선출
류 총장 “특성화 학제 개편”

동국대 WISE캠퍼스를 이끌어갈 차기 총장으로 류완하 동국대 WISE캠퍼스 스마트시티융합대학 디자인미술학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는 11월 21일 제352회 이사회를 열고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으로 류완하 교수를 선출했다.

차기 총장으로 선출된 류완하 당선인은 동국대 WISE캠퍼스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를, 계명대 예술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WISE캠퍼스 도서관장, 평생교육원장, 기획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동국대 WISE캠퍼스 문화예술디자인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 당선인은 총장 공약으로 특성화 분야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컬 대학 3.0을 대비해 2차전지, 자동차 부품소재, 스마트 관광 분야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학제를 신설하고, 경주를 기반해 인문, 영상콘텐츠, 웹툰 등을 배우는 문화콘텐츠 학제를 만들 것을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류 당선인은 “글로컬 대학 3.0에서도 요구하듯 앞으로의 교육방향의 근간은 학문 간의 벽을 허무는 융합학제로의 개편이 변화의 주된 과제”라면서 “융합학제의 완성은 지역거점 대학으로서 혁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산학연 협력모델 강화 등을 통해 연간 100~12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확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불교 종립 대학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으로는 △불교대학의 경쟁력 강화 △일반학과와 융합교과목 개발 △외국인 유학생 불자 양성 △연 1회 이상 불교학 관련 국제 수준의 학회 기획 및



주최 △대학생 전법단 운영 △불교생활사 박물관 건립 △유튜브, 웹툰 등을 활용한 포교 등을 내놨다.

류 당선인은 선출 직후 밝힌 소감을 통해 쇄신을 통해 학교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류 당선인은 “갑자기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어깨가 무겁고, 숙연해진다”며 “동국대학교는 불교 종립학교로서 학교가 무너지면 불교의 한 단면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오늘 이사회의 결정이 헛되지 않도록 쇄신하고 정진해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날 이사회는 이사장 돈관 스님의 이사 임기가 12월 8일 새로 시작됨에 따라 상정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선출의 건’을 통해 만장일치로 현 이사장 돈관 스님을 재선출했다. 중임된 임기는 오는 12월 8일부터 2027년 12월 7일까지 4년이다.

내년 2월 17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성월 스님의 후임으로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진화 스님이, 12월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문 스님의 후임으로 성행 스님(청계사 주지)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원명 · 호산 · 경우 스님은 만장일치로 재선출됐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감사 원명 스님의 후임으로 법성 스님(신륵사 주지)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한편, 이사회 앞서 이사스님들의 학교발전 기금 기부도 이어졌다. 이사 경우 스님은 7000만원을, 호산 · 정문 스님은 5000만원을, 종호 스님은 2500만원을 쾌척했다.

신중일 기자

중앙승가대 네팔 불교대학 MOU

11월 21일, 학술 · 학생 교류 협력



중앙승가대(총장 월우)와 네팔 국립 룸비니 불교대학이 양교간 학술 및 학생교류 협력에 뜻을 모았다.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과 네팔 국립 룸비니 불교대학 수바라나 라바즈라차라야 부총장은 11월 21일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에서 양교의 상호 교류와 우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에 따라 양교는 △양교의 학생 교류 독려 △학술교류 활동 전개 △상호 교육과정 발전 및 교학실천 활동 △합작 연구 촉진 등을 전개한다.

한편 네팔 국립 룸비니 불교대학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 위치한 네팔 유일의 국립불교대학이다. 총리가 총장직을 맡는 중앙정부 직속 기관이며, 약 2000명이 재학 중이다.

김내영 기자

“GO! 전법! 부처님 가르침 행하GO, 전하GO, 누리GO”

조계종 포교원, 11월 22일 송년법회
새로운 슬로건 ‘GO! 전법!’ 공개
선업 스님 “실천으로 전법케어”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22일 송년법회에서 새로운 슬로건 ‘Go! 전법’을 공개하고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선업 스님 포교원장 취임과 함께 출범한 제9대 포교원이 “GO! 전법”을 외치며 전법활동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은 11월 22일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제9대 포교원과 함께하는 불기 2567년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송년법회에서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포교원의 새로운 슬로건 ‘GO! 전법!’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선업 스님은 “제8대 포교원 슬로건인 ‘전법ON’의 연결선상에서 전법의 기치를 내걸고 활동에 더욱 매진하자는 의미가 담겼다”면서 “전법의 등불이 세상을 비춰 모든 존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디테일’을 강조한 스님은 슬로건의 실천적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GO! 전법!’”에는 지금 행하고(GO), 바로 전하고(GO), 함께 누리고(GO)의 의미가 담겼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스님은 불교 중흥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을 염원하기도 했다. 스님은 “새벽마다 전국 모든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태민안 발원 기도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모인 것”이라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전법케어’를 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포교원장 선업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포교원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

진우 스님은 “전법은 먼 곳에서가 아닌 나와 가까운 가족, 이웃, 아이들, 청년들에게 먼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라면서 “대승보살 원력으로 부처님 법 전하는 인재불사에 함께 정진해달라. 그 전법의 길에 종단도 늘 든든한 도반으로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뛰어난 리더십과 신심, 탁월한 능력으로 포교원을 이끌어 갈 것이라 기대한다”며 선업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신도회와 포교단체에도 “포교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하나 돼 부처님 법 널리 알리는 책무에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동참 대중들은 오른손을 들고 “GO! 전법!”을 큰소리로 세 번 외치고 전법의지를 다지면서 송년법회를 마무리했다.

임은호 기자

공불련, “나라와 국민을 부처님 같이”

11월 18일~19일, 창립 23주년 기념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정승윤, 이하 공불련)가 창립 23주년을 기념하며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나라와 국민을 부처님 같이 섬기며 나아갈 것을 서원했다.

공불련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통도사 일원에서 ‘창립 23주년 기념법회 및 대의원 총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공불련은 법회 및 문화공연, 수행정진을 이어갔으며 〈금강경〉 독송과 108배 참배 등 템플스테이도 진행했다. 입재법회에서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공무원은 무엇보다 국가관이 투철해야 한다. 우선 계(戒)를 지키고 마음의 부처를 찾아야 한다”며 이어 “마음의 부처를 찾으면 화합을 할 수 있다. 항상 화합해야 하며 작은 틈도 만들지 말고 나라와 민생을 위해 정진하는 원력으로 공복(公僕)의 역할을 다해주기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통도사에서 무엇보다 각자의 마음을 마주하는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아보는 시간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불련은 통도사 문수법당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며 사업일정 등 주요사안을 논의 및 승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불교인권위, 33주년…인권상에 여래종

11월 20일, 기념식 및 시상식 개최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가 1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33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살행 실천을 굳게 다짐했다.〈사진〉 기념식과 함께 제29회 불교인권위원상 시상식도 열어 여래종에 상금 300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불교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인권 탄압에 맞서 불국정토 구현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왔다”며 “(불교인권위의) 민주, 빈민, 노동자, 환경 등 다양한 방면의 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운동이 보편화 ·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기념식에 이어 제29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여래종은 국내 교화시설과 소외계층을 위한 보살행을 시작으로 40여 년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는 해외포교의 일환으로 스리랑카와 미얀마 등에 우물파기, 장학금 · 학용품지원, 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명안 스님은 상금으로 받은 300만원에 금일봉을 더한 금액을 불교인권위원회 활동기금으로 전해 훈훈함을 더했다.

김내영 기자

신흥사, ‘지역 미래불자 기금’에 1천만 원

강원지역 동국대 재학생 10명에 장학금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가 11월 22일 교내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신흥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에 1천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건학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하며, 동국대 재학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 이날 53회를 맞았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이번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신청을 위해 강원도 속초, 양양, 인제, 철원 지역의 동국대 학생 총 27명 중 25명이나 신흥사 육성장학에 지원했다.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동국대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8위를 기록하는 등 학교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으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흥사 선덕 득우 스님은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동국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활동해주길 바란다”며 “전액장학제도인 동국건학장학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학업과 활동에 열중하길 바라며, 앞으로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이루어지길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불교문화상품 공모 최우수상 ‘온고지신’

문화사업단, 11월 23일 시상식
원명 스님 “대중 관심 높아져”



한국불교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해 그 우수성을 알려온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제9회 최우수상에 OHHO(오호, 주수완 · 김은진) 팀의 ‘온고지신’이 선정됐다.〈사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문화사업단)은 11월 23일 서울 템플스테이홍보관에서 제9회 불교문화상품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을 비롯한 수상자 16팀에게 상장을 수여했다.〈사진〉 다만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작품이 선정되지 않았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온고지신’은 꽃살문과 단청 모양의 뱃지로, 디자인과 활용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OHHO 팀의 주수완 씨는 “한국 전통을 공부하다 보니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며 “사찰을 다니면서 느꼈던 꽃살문과 단청의 아름다움을 현대인들에게 실용적으로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수상작은 11월 23일부터 한 달간 템플스테이홍보관에 전시된다.

김내영 기자